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을 탐구하다'

계룡산 수통골 일대 버섯 식생 탐사

2017. 08. 21

장영웅, 정려빈, 정원, 조운상

지도교사 : 김제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탐사제목 계룡산 수통골 일대 버섯 식생 조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313 장영웅, 1314 정려빈,
2313 정원, 2314 조운상

1. 탐사의 필요성

가. 1차 주제의 부적절성

1차 주제는 'ICP를 이용한 계룡산 국립공원의 폭포 및 계곡의 수질 분석'이었으나 인문 자연탐사 기간 첫날 비가 오게 되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때문에 2차 주제였던 버섯 식생 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독버섯 사고

최근 10년간 독버섯으로 인해 200명 이상의 사람이 중독되었고 15명이 숨졌다.^[1] 계룡산에서 따온 버섯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계룡산 수통골 일대의 버섯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계룡산을 찾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의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계룡산에서의 버섯 식생에 대해 탐사를 진행하였다.

2. 탐사 과정

가. 버섯 탐사 및 분류 과정

- 1) 계룡산을 오르면서 보이는 버섯들의 사진을 찍는다. 이 때 버섯의 갓과 대가 잘 보이도록 가까이서 찍는다.
- 2) 버섯도감을 이용해 사진을 찍은 버섯들의 종류를 파악한다.
- 3) 버섯들을 식독 여부에 따라 식용, 약용, 독, 식용부적합, 식독불명으로 분류한다.

나. 일차에 따른 탐사 과정

- 1일차: 수통폭포 하류 지역 근처에서 버섯의 분포에 대해 탐사한다. 점심 식사 후 수통폭포를 지나서까지 탐사를 진행한다. 저녁식사 후 학교에 복귀해 버섯 종류 파악한다.
- 2일차: 도감을 통해 버섯 종류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 3일차: 버섯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발표자료 및 포스터를 제작한다.

3. 탐구 결과

가. 버섯 종에 따른 분류

1)사전^[2]을 찾으며 버섯의 외형을 통해 분류한 버섯의 종은 다음과 같이 40종이 나왔다.



표 1 버섯의 종 분류

나. 독, 식용, 식독 불명, 식용 부적합, 약용에 따른 분류

다음은 분류한 40종의 버섯을 독, 식용, 식독 불명, 식용 부적합, 약용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분류	독	식용	식독불명	식용 부적합	약용	총합
종 수	1	12	9	12	2	40

표 2 용도에 따른 분류

*참고-각 분류에 따른 버섯 종류

독: 개나리광대버섯

식독 불명: 가랑잎애기버섯, 과립여우갓버섯, 긴목말불버섯, 등갈색미로버섯, 목장말불버섯, 벗짚소통버섯, 장다리종버섯, 짧은털접시버섯, 흰가시광대버섯

식용: 개암다발버섯, 피꼬리버섯, 덕다리버섯, 밀버섯, 버터애기버섯, 송귀신그물버섯, 쇠뿔기버섯, 실끈적버섯, 애기밀버섯, 주름버섯, 흰우산버섯, 흰주름버섯

식용부적합: 갈색솔방울버섯, 굴털이젖버섯, 그물목이, 바늘버섯, 벽돌흰구멍버섯, 삼색도장버섯, 애기방귀버섯, 앵두낙엽버섯, 연한살갗버섯, 우산낙엽버섯, 전나무조개버섯, 주름낙엽버섯, 주름버짐버섯, 주황혀버섯, 털가죽버섯, 흰용털구름버섯

약용: 구름버섯, 영지버섯

4. 결론 및 제언

일반인의 눈으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별하기 매우 힘들다. 그 예로, 우리가 계룡산에서 찾은 독버섯 개나리광대버섯과 식용버섯 꾀꼬리버섯은 거의 흡사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버섯은 절대 먹어선 안 된다.

시간과 비용적 문제로 수통골 일대의 버섯만 탐사할 수 밖에 없어 동학사 갑사 일대의 버섯들을 탐사할 수 없었다. 또한, 버섯들을 분류할 때 대부분 갖의 특징과 색 등의 외형을 보고 분류하였다. 때문에 분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버섯들의 포자를 채취하여 모양 등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분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5. 활동 후기

장영웅: 버섯을 찍기 위해 고생했던 것만큼 많은 종류의 버섯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버섯들을 분류하면서 사진만을 보면서 분류하기는 매우 어려웠기에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려빈: 처음 계획했던 20종의 버섯의 2배인 40종의 버섯을 발견하고 분류하는데 성공하여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길을 걸으면서 육안으로 버섯을 확인해야했고, 표본을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버섯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

정원: 외형만 보고 버섯을 분류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포자까지 채취하여 분류 했으면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버섯의 분류를 끝마치고 40종의 버섯이 나와 버섯을 찍기 위한 고생이 보람 있었다.

조윤상: 버섯을 촬영하기 위해 가끔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길을 가야했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오랜만에 등산을 하게 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더 많은 체력이 소비된 것 같다. 버섯을 분류할 때 비슷한 외형의 버섯이 많아 분류가 쉽지 않았다.

6. 참고 문헌

[1]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70432

[2] 한국의 버섯 도감